

▲클럽정보

내정보

빛나는 그룹

· 클럽장

· 개설일 2009.04.06 [소개]

· 회원수 21 [주소록]

클럽초대

클럽 글쓰기

전체글보기(47)

전체사진보기(1)

사진 슬라이드 보기

프리톡

공지사항

소근소근

난니가누군지몰라

수다 한판

신문고

특별하고녀들

수업권

반성폭력

복지

2009여성현실제

2009 WomFilmFestival

자료실

전체댓글 | 내글댓글

·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발자국

클럽회원 파도타기 ----- ▼

클럽탈퇴

전체글보기: 반성폭력

청정강의 서명 교수님께 드릴 제안서 초안 수정본

주소복사

2009.08.23 23:37

조회 4

교수님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 22대 총여학생회 <ACTION! 미미>입니다. 교수님께서도 요즘 강의실 언어 성차별/성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앙대 총장님께서 자신의 제자에게 '감칠맛 난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던 것을 비롯하여, 각 학교마다 강의 중 언어 성차별/성폭력에 관한 문제는 늘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한 유명 사립대의 성폭력 상담소에서 밝힌 강의 중 언어성차별/성폭력 내용 중에는 ▲여성비하 발언 ▲남녀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담긴 발언 ▲성적농담 및 음담패설 등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집에 가서 애나 봐라", "자고로 모든 문제는 여자 때문에 발생한다" 등의 발언 뿐만이 아니라여학생이 많은 곳에서 "여기 물 줄네"라고 하거나 "최소가치가 높은게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는한 학생이 "여자"라고 답하자 "아니다, 처녀다"라며 상식 이하의 답을 제시한 교수도 있었다고 합니다.지난해 4월에는 고려대학교 청정대에서는 천공수업 강의 중 "취업하고 싶은데 못하는 심정은 성폭행을 당하고 싶은데 못 당하는 늙어가는 여자의 심정과 같다"고 발언하여 강의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비록 모든 교수님들께서 이와 같은 성차별/성폭력적 발언을 하시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수의 학문적 권위와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발언이 강단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차별/성폭력적 발언의 대상인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요, 성차별/성폭력적 인식이 교수의 학문적인 권위와 맞물려 학생들의 인식과 사회 분위기 전반에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스승이자 원 시기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학문적 책무를 지고 계신 교수님께서 강의실 내 언어 성차별/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여학생회와 각 단위대학 학생회에서는 교수님께 청정강의 서명운동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청정강의 서명은 청균관대학교의 교수님들께서는 강단 위의 모든 언어 성차별/성폭력에 대해 반대하며, 이러한 발언이 없는 청정강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캠페인입니다. 모든 학생이 성별과 청정채팅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교수님들의 서명이 모여 학내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정강의 서명운동은 저희 총여학생회와 단위대학 학생회가 함께 진행하며, 교수님들을 방문하여 '청정 강의 진행 및 언어 성차별/성폭력 반대' 서명을 받으면서 진행될 것입니다. 전 교수님들께서 모두 서명해 주신다면 일간지를 통해 교수님들과 함께 한 캠페인의 성과를 공개하고, 서명된 용지를 모아 학교 본부에 전달하고 사본을 각 학생회실마다 비치할 예정입니다.



여성에 대한 복지의 증가로 가시적인 차별이 완화되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차별에 대한 논의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차별은 그에대한 거부와 반대의 의사표시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교수님들께서 더욱 잘 아실겁니다. 양적인 차별이 아니라 질적인 차별에 대하여 이제는 이야기를 할 때이며, 질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교수님들의 제자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균관 대학교의 자부심이 명문대학교라는 자부심 뿐만이 아니라 강의 중 언어 성차별/성폭력이 없고 교수님들께서 앞장서서 언어 성차별/성폭력에 반대한다는 자부심으로까지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훌륭한 강의에 항상 감사드리며, 2009년 2학기에도 멋진 강의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간내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00계 22대 총여학생회 <ACTION! 미미> 올림. 0총여학생회장